

‘김현우 결승골’...남아공 꺾고 ‘16강 청신호’



29일 폴란드 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 김현우(가운데)가 후반전 선취골을 넣은 뒤 팀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며 호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U-20월드컵 남아공戰 1대0 승리

‘승점 3점’ 포르투갈과 동점...골득실 앞서 F조 2위 아르헨티나 최종전 패하지 않으면 ‘16강 진출 유력’

‘유럽파 수비수’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의 결승 골을 앞세운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물로 첫 승리를 따내고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 진출의 청신호를 켜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9일 폴란드 티히의 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F조 2차전에서 후반 24분 터진 김현우의 헤딩 결승 골을 끝까지 지켜내 1대0으로 이겼다.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0-1로 져 어렵게 출발한 한국은 남아공을 꺾고 1승 1패(승점 3·골 득실 0)를 기록, 이날 아르헨티나(승점 6·골 득실 5)에 0-2로 패한 포르투갈(승점 3·골 득실 -1)과 승점에서 동점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조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한국은 6월1일 아르헨티나

와 F조 최종전에서 패하지 않으면 16강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16강 진출을 확정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정용호로서는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는 게 중요해졌다.

만약 최종전에서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패하고, 포르투갈이 남아공을 꺾으면 한국은 다시 조 3위로 떨어지게 돼 다른 조 3위 팀들과 성적을 비교해 16강 진출을 타진해야만 한다.

1차전에서 스리백을 가동했던 한국은 남아공을 상대로 ‘193cm 장신’ 오세훈(아산)을 원톱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에 이강인(발렌시아)을 세우고 좌우 날개에 조영욱(서울)과 임원상(광주)을 배치한 4-2-3-1 전술로 나섰다.

전반 12분 만에 첫 슈트를 기록한 한국

은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남아공 시페시을 음키즈가 시도한 슈트를 골키퍼 이광연이 어렵게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모면했다.

이광연은 전반 19분에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제임스 모니안의 슈트를 몸으로 막아내는 선방을 선보였다.

전반 중반부터 빗줄기가 굵어진 가운데 한국은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중원에서 내준 패스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 있던 오세훈에게 연결됐지만, 슈트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전반에 6개의 슈트를 시도했지만, 유효슈팅 ‘제로’에 그쳐 남아공을 제대로 위협하지 못했다.

남아공의 수비를 계속 압박한 한국은 후반 16분 문전으로 투입된 볼이 흘러나오자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정호진이 시도한 원발 슈트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땅을 쳤다.

하지만 ‘크로스바 악재’는 곧바로 ‘결승 골의 행운’으로 이어졌다.

결승 골의 주인공은 유럽파 수비수 김현우였다.

한국은 후반 24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김정민이 투입한 볼이 수비수의

U-20 월드컵 F조 순위					
29일 현재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아르헨티나	2	0	0	5	6
한국	1	0	1	0	3
포르투갈	1	0	1	-1	3
남아공	0	0	2	-4	0
5월 29일(수)	포르투갈 0 : 2 아르헨티나				
	남아공 0 : 1 한국				
자료 / FIFA	연합뉴스				

발에 맞고 골대 앞에서 높게 뜬 공격에 가담한 김현우가 헤딩으로 남아공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1차전에서 무득점에 그쳤던 한국은 2차전에서 김현우의 득점으로 대회 1호 골을 맞췄다.

한국은 후반 막판까지 남아공을 괴롭혔고, 후반 추가시간 골키퍼 이광연이 상대 헤딩슈트를 수퍼세이브하며 1-0 승리를 마무리하고 기분 좋은 대회 첫 승리를 만끽했다. /연합뉴스

내일 개막 US여자오픈 왕관을 쓰려는 자

“37도 더위·99개 bunker 넘어라”



여자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총상금 500만 달러)이 열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28일 햇볕이 따가웠고, 사람들은 대부분 반바지 차림이었다. 스마트폰 날씨 애플리케이션을 켜니 기온이 37도였다.

US여자오픈이 열리는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으로 향하는 도로 위 전광판에는 화씨 103도(섭씨 39.4도)가 찍혀 있었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찰스턴에서 31일부터 나흘간 US여자오픈이 열린다.

이날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에서 연습한 이미향(25)은 “선수에게도 많이 더운 것 같다. 바람도 항상 분다고 하더라”라며 “어제 끝난 퓨어실크 챔피언십도 더위 속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도 집중력을 유지해야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이번 US여자오픈에서 넘어야 할 변수는 더위뿐 만이 아니다.

연습라운드를 마친 후 만난 최운정(29)은 “그린이 다르더라. 공이 잘 뛴다. 그리고 bunker가 굉장히 많다”고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의 첫인상을 전했다.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에는 총 99개의 bunker가 지뢰밭처럼 포진해 있다.

15번 홀(파5)에는 무려 10개의 bunker가 도사리고 있다. 4번 홀(파4)과 14번 홀(파4)의 bunker는 9개다.

4번 홀의 경우, 그린 주변을 bunker 6개가 둘러싸고 있다.

16번 홀(파4) 그린은 앞에 3개의 bunker가 놓여 있어 마치 말발굽 모양 같다.

이 홀의 별명은 ‘사자의 입(Lion’s Mouth)’이다. 이 코스를 만든 천재 설계자 세스 레이너가 가장 창조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홀이다.

11번 홀(파3)도 악명 높다. 그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져 있고, 양 옆에는 bunker가 있다.

현지 매체 ‘더 포스트 앤드 큐리어’는 “파를 하면 잘한 것이고, 보기를 해도 나쁘지 않은 홀”이라고 평가했다. 왕년의 골퍼 레이 시겔은 11번 홀을 ‘잔인한 홀’이라 불렀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더위와 ‘지뢰밭 bunker’를 극복하는 선수가 US여자오픈 우승컵과 상금 100만 달러의 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역대 한국 선수 US여자오픈 우승 일지

박세리
• 출생 1977.9.28
• 우승연도 1998년

김주연
• 1981.8.26
• 2005년

박인비
• 1988.7.12
• 2008년, 2013년(2회)

지은희
• 1986.5.13
• 2009년

유소연
• 1990.6.29
• 2011년

최나연
• 1987.10.28
• 2012년

전인지
• 1984.8.10
• 2015년

박성현
• 1983.9.21
• 2017년

연합뉴스

광주FC, 이희균·임민혁·김태곤

도쿄올림픽 담금질 ‘시동’

내달 3일 김학범호 소집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김학범호가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본선을 대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국내 1차 소집 훈련을 한다.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AFC U-23 챔피언십 본선이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해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권 획득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수 점령에 나서는 것이다.

김학범 감독은 대학생 선수 5명과 프로축구 K리그 21명 등 총 26명의 1차 훈련 소집명단을 확정했다.

◇ 22세 이하(U-22) 대표팀 국내 1차 소집훈련 명단(26명)

▲골키퍼(3명)= 문정민(울산) 김태곤(광주) ▲골키퍼(3명)= 문정민(울산) 김태곤(광주) ▲수비수(9명)= 박대원(수원 삼성) 박경민(부산) 차오연(한양대) 김태원(울산) 황준호(부산) 이정문(대전) 강윤성(제주) 권기표(서울 이랜드) 김태환(수원 삼성) ▲미드필더(7명)= 김진규(부산) 이수빈(포항) 김준범(경남) 김효찬(성균관대) 임민혁(광주) 이상현(울산) 성호영(영남대) ▲공격수(7명)= 이희균(광주) 김민준(울산) 이인규(FC서울) 박하빈(울산) 조규성(안양) 이건희(한양대) 하승윤(포항) /연합뉴스



임민혁 이희균 김태곤

함평군청 김형주, 伊 국제레슬링 ‘값진 銀’

결승서 부상 발목 역전패

‘한국 여자 레슬링의 간판스타’인 김형주(함평군청)가 2019 이탈리아 사사리 랭킹시리즈 국제 레슬링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형주는 지난 23-26일 이탈리아 사사리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부 -53kg급 결승전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폴레체크에 1대6으로 역전패, 아쉽게도 은메달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현 국가대표이자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이기도 한 김형주는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앞서다가 갑작스런 어깨부상이라

는 돌발 변수로 역전패의 분부를 삼켜야 했다.

정면타클이 주무기인 김형주는 올해 회장기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을 취득했다.

윤성용 함평군청 감독(4은 “(김)형주의 컨디션이 너무도 좋았던데다 기술이 먹혀들어 내심 금메달 획득까지 기대했으나, 불의의 어깨 부상으로 은메달에 그쳤다”며 “앞으로 확실히 기량을 연마시켜 각종 국제대회 입상은 물론 오는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금메달을 반드시 수확하고 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양궁, 소년체전 ‘효자 종목’ 자리매김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양궁이 효자 종목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광주양궁은 이번 체전에서 남중부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양궁 셋별로 떠오른 최우진(운리중 1)이 대회 첫날 오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50m에서 중등부 최강자 김제덕(예천중 3)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첫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60m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중부에서는 조수혜(광주제중 2)가 6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30m에서는 조정우(광주제중 3)가 금메달을 보냈고, 남초부 20m에서는 배정원(성진초 6)이 초등부 첫 금메달을 따냈다.

남중부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것은 지난 2003년 소년체전 이후 16년 만이다.

지난 대회에서 초등부 단체전 동메달 1개에 그쳤던 광주양궁은 이를 계기로 협회와 일선 지도자들이 심기일전, 체계적인 합동 훈련 시스템을 구축 경기력 향상에 매진했다.

현장 지도자들이 앞장서 광주국제양궁장과 학교를 오가는 힘든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협회는 다양한 지

원으로 힘을 보탰다.

또한 초·중·고·대학·일반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는 광주시협회장배 대회를 통해 목표를 향한 강한 동기부여는 물론 광주양궁을 대표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하우를 전수를 통해 기량을 향상했다.

광주가 양궁 중심도시로 도약한 것은 초·중학교 팀 육성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각종 대회를 통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힘을 쏟은 덕분이라는 평가다.

여자양궁의 경우 초·중·고·대학(광주여대)·일반부(광주시청)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계육성 시스템으로 주현정, 기보배, 최미선, 이특영, 최민선, 김소연,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남자양궁의 경우 실업팀 부재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배출하고도 타 시·도로 유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광주시체육회가 체육인재 육성 일환으로 남자팀을 꾸려 지난해 임지완(광덕고-현대제철), 이한정(광덕고-청주시청), 김승은(광주제고-인천 계양구청), 정일기(광주제고-인천 계양구청)가 고향에서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겠다는 일념으로 동지를 뒀다. 하지만 타 시·도 실업팀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자양궁의 성공 사례를 비취볼 때 남자양궁도 지역 실업팀 창단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광주양궁의 남녀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년체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양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지금, 남자실업팀 창단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희중 기자